I·SEOUL·U

서울동행

동행인문학

To live together

가지 않은 길

-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므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거나 안전이 보장된 길로 다닙니다.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아 수풀이 깊게 우거져 있는 울퉁불퉁한 길은 좀처럼 선호되지 않는 길이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로 다니면 어떤가요? 익숙하기도 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때문인지 그 길은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며 더불어 상대적인 안정과 안전함을 느끼죠. 그러나 이상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과 안전함이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다가옵니다. 느긋함은 잠시 또 다시 쫓기듯 숨 가쁘게 걸어도 보고 뛰어도 봅니다. 그러다 또 다시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나왔을 때에는 조금 용기를 내봅니다. 좁고 투박하지만 한적해 보이는 다른 길로 들어서봅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심지어 되돌아갈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앞선 길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멋진 하늘풍경과 길가에 심겨진 나무며 들꽃들, 심지어 길가의 흙냄새, 바람 냄새 까지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앞서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나를 발견하고는 가벼운 눈인사와 함께 어느덧 속도를 늦춰 나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간 나 혼자만 보고 느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시각의 새로운 경험을 함께 공유합니다. 같은 길을 걸으며 똑같이 보았을 풍경도 소리도, 냄새도 그리고 순간 생각했던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조각들도 나와 다를 수 있음을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다운 스펙을 쌓을 수 있거나 흔히 성공과 연관성 높은 일들에 관심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직선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에둘러 돌아가는 격이니 어쩌면 당연합니다.

에둘러 돌아가는 길은 '빠름'을 포기하고 '느림의 미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관찰이나 경청, 마음속에 실낱같이 피어 오르는 두렵고 어색하고 불편함의 다양한 감정의 아지랑이들을 충분히 허용하고 알아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동행은 직관적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서, 숨어있던 나의 다양한 모습과 주변의 다양한 것들을 하나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을 동행이라는 여정에 초대합니다.

서울동행 봉사활동

나에게 어떤 경험이 될까?

1. 여정을 시작하며 _

· 동행 활동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9
· 여정을 시작하며 11
· '나'에서 '우리'로 13

2. 우리들의 실천과 변화 _

· 우리의 실천, 그리고 변화 17
· 동행으로 피어난 꽃 34

3. 소셜리더십 _

· 소셜리더십 36
· 리더십 37
· 소셜 39
· 다시, 소셜리더십 41

4. Connecting _

· Connecting_ 44

1. 여정을 시작하며 _

『 동행은 자원봉사활동인데 왜 인문학을 이야기할까요? 』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인문이란 것은 사람들의 결이나 무늬에 관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관계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유는 없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살다'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며,
'죽다'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중에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면 '생존'할 뿐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관계 속에서 배움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시민이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자기다움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동행 자원봉사활동은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이 되어 줍니다.

동행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인문학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경험의 사다리'를 마련하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게 합니다.

동행 활동 속에서의 경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동생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실천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존재하지만 시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보려고 하지 않으면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도 의미와 기운을 갖고 있기에 섬세한 경험들을 해석하고 가치를 새겨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행의 인문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동행 자원봉사활동을 단순한 경험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이 삶의 앎과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으로 확장되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 여정을 시작하며 』

Q. 서울동행 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서울동행 활동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나요?

Q. 서울동행 활동을 마친 후의 나,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요?

『나에게서 우리로』

민수(가명)와 친해지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어 수업을 희망하던 친구였기에 국어에 대한 열정도 어느 정도 있고, 나아가서 나처럼 꿈도 국어와 관련된 친구가 아닐까 기대하며 장래희망에 대해서 물어봤었다. 그랬더니 민수는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유튜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가장 무섭다던 중2들을 데리고 학원 아르바이트 해보고, 소위 노는 아이들의 과외도 적지 않게 해봤기 때문에 교육봉사 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민수와의 첫 만남에서 내 기대는 다 무너지고 말았다. 게다가 국어에 대한 열정은 커녕 다른 모든 과목은 개인과외를 하지만 국어만큼은 해도 늘지 않아서 선생님의 권유에 억지로 신청했다는 말에 나는 그 날 일찍 수업을 접고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봉사에 가고 싶지 않았다. 기대감으로 가득차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첫 날과는 다르게 민수를 만나고 난 뒤로 봉사에 가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나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가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기 전부터 힘이 쭉 빠졌다. (중략)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민수를 만나러 오기에 양심에 찔려서 하루는 민수와 맛있는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평소에 나는 교탁에 서 있고, 민수는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책상을 돌려서 마주보고 밥을 먹었다. 내가 앉으니까 핸드폰은 넣었지만 여전히 내 눈은 쳐다보지 않았다.

조금 서운했지만 밥을 먹을 때만큼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민수가 맨날 하던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민수는 숟가락도 내려놓은 채, 게임 캐릭터와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때는 간간히 내 눈도 쳐다봐 주었다. 이어서 나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너에게 국어를 가르치러 왔지만, 나도 아직

학생이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항상 준비도 열심히 해오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함께 공부하 자고 말이다. 그러자 민수가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었다. “선생님도 국어가 어려워요? 저는 국어 어렵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봐요.” 그동안 민수가 국어를 어려워해도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제일 쉬운 과목을 어렵다고 한다며 무시하고, 잘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했다. 민수가 그동안 받아온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국어를 가르치러 온 나에게도 마음을 열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비록 그 날은 문법 학습활동 한 페이지 밖에 진도를 나가지 못했지만, 민수와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중략) 나만 힘들고, 나만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기에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왜 저럴까.’ 라는 생각만 가득하니까 나를 돌아보기 보다는 민수의 탓만 했던 것이다. 민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민수에게 좋은 수업을 주고, 나아가 민수와 내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그동안 목에 걸고 있었던 ‘동행봉사자’라는 목걸이를 풀고, 교탁을 벗어나 민수와 눈을 마주치며 수업을 해보았다. 아무래도 내가 민수에게 ‘봉사’하러 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자꾸 보이면 민수도 심리적으로 날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또 교탁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수업하기보다는 민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걸어 다니면서 민수와 눈을 맞추며 상호작용하고 싶었다. 그렇게 ‘봉사하러 왔다.’는 봉사자 타이틀을 버리고, 민수와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중략)

‘봉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저 내가 약속한 시간과 내가 약속한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점차 민수에게 좋은 시간을 주고 싶어서 학교생활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정성을 다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 보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내면과 민수의 내면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다. 무조건 베푼다는 생각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것. 내가 민수와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된 ‘봉사’의 의미이다.

- 출처 : 2018년 서울동행활동 스토리북, 유예빈 스토리 중에서

Q. 대학생인 우리를 설명해주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Q.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던가요?

Q.'서울동행 활동에서는 어떤 사회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Q.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사회문제가 있나요?

2. 우리들의 실천과 변화 _

“내가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인데”

작고 귀여운 나만의 용기

“분실물 주인 찾습니다.” - 중고거래 어플을 통한 분실물 찾아주기

동행이는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 집 앞에서 손바닥보다도 작은 장난감 신발 한 쪽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소중히 안고 다니는 인형의 신발 같았다. 두 쪽도 아니고 한쪽만 있는 것을 보니, 저것을 잃어버린 아이가 남은 한쪽을 볼 때마다 속상하겠네 생각이 들었다.

중고거래 어플로 종종 동네 주민들과 거래를 해왔던 동행이는, 그 인형신발을 안전한 장소에 옮겨 놓고서 사진을 찍어 “분실물 주인 찾습니다. OO아파트 OO동 에 올려 두었으니 찾아가세요” 하고 글을 올렸다.

몇 시간 뒤 어떤 어머니에게 메시지가 왔고, “인형신발 잘 찾았다. 아이가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엉엉 울고 있었다. 이렇게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동행이는 진짜 자신의 게시글로 인해 분실물을 찾게 된 것에 놀랐고, 이제 울음을 그치고 좋아할 아이를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경비원님 감사합니다.” - 나의 생활 속 감사한 분들께 인사하기

동행이는 뉴스에서 해고경비원들이 소중한 일터를 되돌려 달라는 시위현장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고용형태도 근무환경도 열악한 그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떳떳하게 돈을 번다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그들은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감사의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눈을 쓸어줘서 고맙다는 말.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셔서 고맙다는 말. 치매어머니가 단지 내에서 길을 잃으셨을 때 돌봐주셔서 고맙다는 말. 치매어머니가 단지 내에서 길을 잃으셨을 때 돌봐주셔서 고맙다는 말. 숙제를 도와 주셔서 고맙다는 꼬마아이의 말까지.

안 그래도 매일 아침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를 모른 척 하는 것도 어색했던 동행이는, 다음 날부터 가볍게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우리 경비원 아저씨는 무뚝뚝하신지 그냥 끄덕 하고 말았지만, 동행이는 그냥 꾸준히 인사를 하기로 했다. 경비원 아저씨에게도, 버스 기사님한테도, 환경미화원분에게도. 혹시나 나의 평범한 인사와 감사의 마음이 조금은 힘이 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편해진다면" - 내가 느끼는 불편함 해결하기

화살표 청년으로 불리는 이민호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도를 보다가, 노선도에 방향표시가 없으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씨는 길치인데다가, 인지적성능력 검사에서 공간지각력 문제도 거의 맞춰본 적이 없었다. 매번 버스기사님들에게 OO역 가나요? 물어보며 타야 하거나,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원치 않는 시티투어를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호씨는 자전거를 타고서, 가까운 곳들부터 화살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호씨는, 각 정류장들의 문제점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울시에 제보하였고, 그것이 공론화가 되어, 관련된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취준생이었던 그는, 자신의 불편함도 해결할 겸 운동도 할 겸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QR 스캔 – "화살표 청년" 보러 가기 ▶

"안녕하세오. 저는 고양이애오." - 위트있는 층간소음 쪽지나누기

편안한 휴식공간이어야 할 A씨의 집에, 시도때도 없이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다. A씨는,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고양이 '바나'가 직접 쪽지를 남기는 것이다.

"안녕하새오. 고양이 바나애오.
개소리 넘모 무셔. 도와주새오. 부탁해오."

바나의 쪽지를 받은 옆집 강아지 메리에게 답장이 왔다.

"나는 메리라개.
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개.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미안하개.
지금도 주인이 뭐라한다개.
안그래도 나 때문에 이사가려고 집을 내놨다개.
(중략) 짖어대서 미안하개."

A씨는 작은 간식선물과 함께, 다시 바나의 이해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A씨는 언성이 높아질까 무서웠던 층간소음 문제를, 기분 좋게 해결할 수 있었다.

◀ QR 스캔 – "고양이, 댕댕이 쪽지" 보러 가기

소셜브랜드 가치소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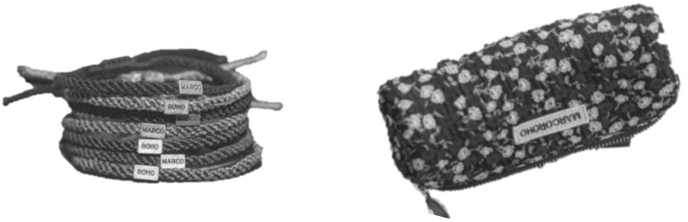
베어베터

발달장애인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고 싶다는 브랜드. 현재 쿠키/꽃/커피/사내매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별로 쉬운 직무를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안도감과 행복을 주고,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전해주고자 가치를 만들고 있다.

출처: 베어베터 홈페이지 http://www.bearbetter.net/

마르코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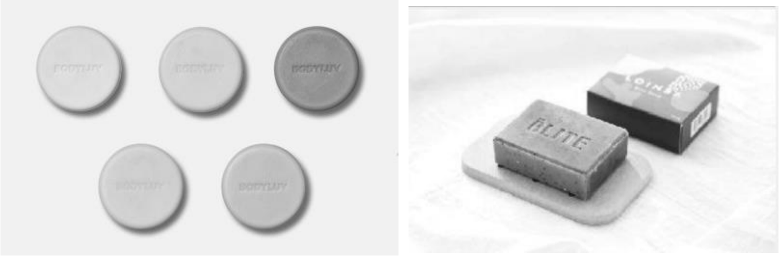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이 높다는 기사에서 출발한 브랜드.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할머니표 수제 제품 생산,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과 체험 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



출처 : 마르코로호 홈페이지 https://marcoroho.com/

동구밭

 발달장애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시작된 브랜드. 지속가능성을 담은 고체 화장품을 제조·납품한다. 모든 제품은 플라스틱, 보존제,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유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공정 역시 안전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설계되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튼튼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출처 : 동구밭 홈페이지 https://donggubat.com

밸리스

 편견으로 인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하는 브랜드. 사회문제를 소비로써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내수면 어업계의 소득 증대, 폐기처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냈다. 제품 생산과 더불어 유기동물 보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출처 : 밸리스 홈페이지 https://ballys.kr/

파타고니아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라는 슬로건에 기반한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몇 세대에 걸쳐 입을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파타고니아 기준에서의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의류폐기물에 대한 캠페인, 환경과 관련된 풀뿌리 단체에 대한 후원을 통해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출처 : 파타고니아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patagonia.co.kr

제리백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아이들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불편하고 위험하게 운반하는 것을 보고, 지역 여성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며 시작된 브랜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 방수기능, 책가방기능, 사고방지를 위한 빛 반사기능 등을 담아 ‘제리백 가방’을 만들어냈다. 소비자와 함께 현지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출처 : 제리백 홈페이지 http://jerrybag.com

코로나19 비대면 문화생활 영위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코로나19 문화생활 챌린지

‘방구석 여행 챌린지’

출처 : 이시영, 이동휘, 이미도 인스타그램

‘슬기로운 집콕생활’

출처 : 헨리, 손태영 인스타그램

"어머, 이건 알려야해"

착한 가게 돈쭐내기

한 손님의 자살을 막은 전주의 마트 사장님

전북 전주시 마트의 이인자 사장님은, 아무 말도 없이 소주와 번개탄을 사가는 손님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느낌에 경찰에 신고했다. 재빨리 그 손님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해당 상황과 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손님은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손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걱정하며,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고 믿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누리꾼들이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해당 주민들은 해당 마트에서 왕창 장을 보기도 하고, 여행객들도 해당 마트에 들러서 이것 저것 구매하는 등 돈쭐을 내고 있다.

어린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제공한 '철인7호' 치킨집 사장님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 익명의 학생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할머니와 어린동생과 살던 고등학생 A군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던 중, 어린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어해 단돈 5,000원을 들고 거리를 배회했다.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치킨은 없었고, 치킨집을 쭈뼛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해당 치킨집 사장님은 흔쾌히 들어오라고 한 뒤 치킨세트를 크게 대접해주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후 어린 동생은 해당 치킨집에 종종 방문했고, 그때마다 치킨을 만들어주고 머리도 깎여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A군이 편지를 보냈고, 이 사연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지역 사람들은 해당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주변 복지기관에 기증하거나, 타 지역 사람들은 치킨은 됐으니 좋은 일에 써 달라며 주문을 통해 기부를 하는 등 돈쭐을 내고 있다.

선한영향력 공동체를 만든 '진짜파스타' 사장님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받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제공했던, '돈쭐내기'의 시초가 되었던 마포구 '진짜파스타' 사장님.

그는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에 대해, 금액도 너무 적고, 가능한 가게도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무료제공을 시작했다고 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가게들이 늘어났고, 이에 '진짜파스타' 사장님은 '선한영향력 공동체'를 만들었다.

선한영향력 공동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게 사장님들은 선한영향력에 동행하기 위한 신청란을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은 우리동네 선한영향력 매장을 확인하여 돈쭐을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서울동행과 같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

출처 : http://선한영향력가게.com/

OO캠페인, OO챌린지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 #안녕캠페인

단절된 사회, 위험한 사회, 불안한 사회에서 안부를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챌린지.

나의 일상에서 우리동네 이웃들에게 나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안녕’을 묻는 챌린지다. 다양한 시민들이 서울시자원봉사플랫폼 ‘V세상’ 혹은 SNS를 통해 자신이 이웃들과 주고받는 실천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한 아파트, 한 동네 단위의 챌린지로 확산되고 있다.

-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인사하기
- 아파트 경비원님에게 인사하기
- 등굣길 녹색어머니에게 인사하기
- 버스기사님, 택시기사님에게 인사하기
- 윗집, 아랫집, 옆집에 인사하기

“우리 같이 용기내!” - #용기내 챌린지

극심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프리를 실천하며 나의 생활을 바꾸는 챌린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 플라스틱 프리를 위해 생활습관을 바꿔보고자하는 개인들이 생겼다. 서로의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더 많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천을 SNS상에 인증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 초급 과정 : 천주머니&에코백으로 야채, 과일, 포장된 식재료 장보기
- 중급 과정 : 밀폐용기로 두부나 해산물 등 물기있는 재료 장보기
- 고수 과정 : 배달은 NO. 주문한 음식에 맞는 사이즈의 용기에 포장해오기

소셜 활동(크루활동, 커뮤니티 활동, 취미 및 특기활동 등)

플라스틱방앗간 ‘참새클럽’

참새클럽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모여 만드는 큰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참새클럽은 시즌제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참새클럽 회원이 된 참여자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작은 플라스틱을 제시된 기준에 맞게 수집하여 플라스틱방앗간으로 보내면 된다. 이후 참가자들이 보낸 플라스틱은 생활용품으로 업사이클링되어 다시 참여자들에게 리워드로 돌아간다.

내가 분리수거하여 보낸 플라스틱들이, 새로운 쓰임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뿌듯함에, 참새클럽 시즌제 신청은 수강신청 혹은 콘서트 예매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한다.

체인지메이커 커뮤니티 ‘허그인’

허그인은, 체인지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실천이 곧 즐거운 소셜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일상 속 나눔의 순간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커뮤니티이다. 계절별, 직장별, 동네별, 키워드별 다양한 실천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개인단위로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취향에 맞는 실천을 골라 도전해볼 수 있다.

또한, 나의 실천을 공유하면 커뮤니티에 모인 이들이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곤 하며, 나와 같은 실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도 볼 수 있어, 서로의 실천에 동기부여를 해준다.

청년들의 어플 개발, 교육, 공연 등 취미와 특기를 살린 활동

1)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동네 약국을 헤매는 것을 보고, 약국 마스크 잔여수량 파악이 가능한 어플을 개발한 청년들
2) 비대면 서비스(키오스크)가 확대됨으로 인해 키오스크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한 청년들
3) 사람들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비대면 합주 혹은 합창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한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사회변화 활동 참여

일상 속 사회변화 실천 참여 – V세상 플랫폼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벽 없는 지도 만들기' 활동
집콕생활로 인해 쌓인 아이스팩을 지역에 기증하는 '얼음 땡' 활동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는 환경과 동물들이 없도록 '줍깅' 활동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터를 위한 '지역 놀이터 보수' 활동
저시력자를 위한 '계단 구분선 설치' 활동

공론화와 정책제안 - 청소년 인권 워크숍

한국공익인권센터의 청년 변호사들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이슈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소년 인권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주제로 청소년들과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소년들은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가해자 및 피해자, 제3자 등 다각적 입장을 경험해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를 공유하였다.
공유된 내용은 청년 변호사들을 통해 '정책제안문'으로 정리되었고, 이를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교육청에 전달하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들의 일인데, 왜 그동안 우리를 배제하고 어른들끼리 해결을 해온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앞으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다." 라고 말했다.

사회변화 활동 기획 및 시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서울동행 활동후기 공모전 – 에세이 28번)

저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다니는 기관에서 서울동행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더 커질 것에 걱정이 된 저는 서울동행과의 동행(同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동생과의 멘토링 활동을 마친 후, 동생은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다양한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소속이 없어 거절당하고, 학교도 그만두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말들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선생님을 만나 진로에 대한 조언도 듣고, 대학생활도 듣고, 세상에는 여태껏 만난 사람들보다 좋은 어른이 훨씬 많다는 말을 들으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는 따뜻한 말이 한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서울동행 활동은 제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으로 옮길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서울동행 활동 이후 저는 두 가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교육격차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무료 강의 제공 유튜브채널과 검정고시 출신자 대학입시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시켜, 더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성장과 의지의 발현은 쉽게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서 벗어나, 사람이라는 인격체로서 서로의 존재에 원동력을 얻으며 무한한 동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을 위한 마스크 키트 지원” (서울동행 활동후기 공모전 – 에세이 59번)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는 문을 닫고 수업은 사이버강의로 진행되었다. 대학생에게 대학교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 정답은 0이다. 그러던 와중 서울동행의 기획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었다. 포스터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문구가 나를 한 순간에 사로잡았다.

그때부터 나는 친구들을 모아,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것은 바로 마스크 제작이었다.

누구에게 마스크키트를 배부할까? 고민하던 중, 우리 학교에 있는 외국인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자신은 한국에 온 지 아직 일년이 채 되지 않아,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스크키트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만들어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생각보다 넘어야 할 고비가 많았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안정성 문제였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관련 업체들과 의료 관련 교수님들에게 하루에 수십장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중 본교의 교수님은, 재학생들이 뜻깊은 활동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번 직접 조언을 주시기도 했다. 한정된 예산, 안정성 문제, 제작방법 등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지만, 그렇게 키트를 제작해 포장하고, 이를 우리들의 본교 유학생 교류팀에 전달하자 뿌듯함이 밀려왔다.

어려움이 겪는 이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이웃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필수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한 봉사가 아닌, 인생 처음으로 직접 우리가 무엇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을 했다. 그리고 직접 하나하나 주문을 하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 세상에 태어난 키트, 이것이 주는 뿌듯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제 누군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학기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말할 때, 자신있게 대학생에서 대학교를 빼면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을지언정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2030 청년세대 주거문맹 해결”
(SK 대학생봉사단 SUNNY – 부리또 팀 사례)

부리또 팀의 사회변화챌린지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 계약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금전적/심리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금전사기를 당한 경우가 빈번하다.” 라는 사회문제에서 시작했다.

사회문제의 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다.

1) 2030 청년세대의 상당수가 주거문맹이다.

2) 부동산 계약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부리또 팀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내 집 마련 가이드북 제작

↓

펀딩을 통해, 부동산 담당 정책 기관에 배부

↓

청년 대상 부동산 교육 진행

↓

노션 플랫폼을 활용한 홈페이지 구축

그들은 위 솔루션을 통해,

1) 내 집 마련 가이드북 텀블벅 펀딩을 목표금액의 200%를 달성하였고

2) 가이드 북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통해 부동산 이해도를 60% 향상시켰고

3) 노션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상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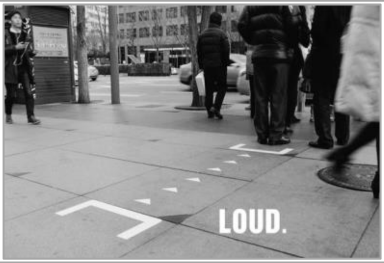
또한 그들은 이러한 임팩트를 기반으로, 가이드북의 외국어 번역, 관련 정보에 대한 전국적 확산, 청년 기관 대상 가이드북 배포, 청년주택 협동조합 등에 샘플 배포 등을 더 추진하며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작은 외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우드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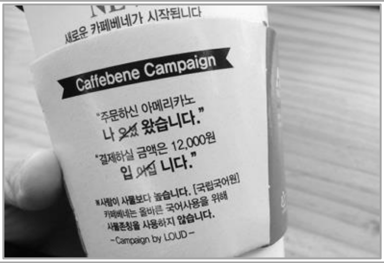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이종혁교수님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나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작은 창의적 소통을 실천하는 연구소로, ‘본질적 소통’, ‘실천적 소통’, ‘공중 주도 소통’을 목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들이 전개한 활동들은 아래와 같다.



대괄호 프로젝트



사물 존칭 바로잡기

양옆을 살펴요

뒷사람 문 잡아주기

QR 스캔 : 더 많은 시도들을 보고 싶다면? ▶

Q. 다양한 실천들 속에서 공통적인 무언가가 느껴지시나요? :)

『 동행으로 피어난 꽃 』

아이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 학교에 다닐 시간에 돈을 벌러 가야 했던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및 교육 소외는 점차 심화되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실감했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교육 격차가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계층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시공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이는 학생마다 시간과 공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격수업 시작 후 사교육업체의 온라인 강의 수요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곧 학교가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받는 시간에 사교육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서울동행과의 동행(同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으며, 오히려 동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멘토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동행의 목표는 저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했기에, 동행활동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동행과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실제로 이를 이뤄낼 수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중략)

올해의 동행은 제 열정에 불을 붙여준 촉매가 되었고, 이후의 제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최종 성장 공유회를 준비하고, 팀원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성하면서 아이의 말을 끊임없이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처음 동행을 결심했을 때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만이 제 원동력이었지만, 서울동행과 함께한 이후 저는 두 가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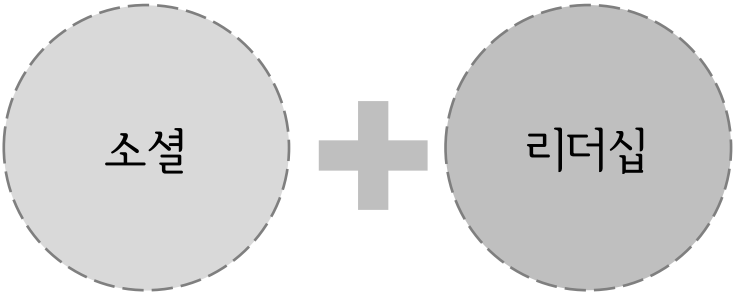
첫째는 이 세상의 '교육 격차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처받고 고통 받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중략)

3. 소셜리더십_

『 소셜리더십 』

우리는 동행이라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시작된, 지극히 사적인 나의 활동이 어떻게 사회적인 차원의 활동으로 확장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 '소셜'이라는 단어와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그 궁금증을 풀어줄 것입니다.



『 리더십 』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곤 하죠. 서점에서 '리더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무려 32,114개의 관련 서적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한 걸까요?

코칭리더십 팀장리더십 서번트리더십 경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의사소통리더십 위기관리리더십 중간리더십 빅맨리더십...

- 출처 : 동행인문학(2020)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전통적인 리더십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이란 "일정한 상황 하에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R.M. Stogdill)"이라고 합니다. 즉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리더십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환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Warren Bennis는 "리더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과의 동의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 Warren Bennis, '리더' (1989) 중에서

자원봉사에도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자원봉사도 사람 또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특히 동행활동은 동생, 관리교사, 동료들과 함께 동반성장한다 '상황'과 '목표'와 '영향'이 있습니다.

영국의 학자 Kearney는 자원봉사란 "사회와 지역공동체의 공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바라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헌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자원봉사는 '사회'라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리더십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바탕을 둔다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사회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 '주인' : 소유의 의미가 아닌, 자기주도성을 의미

『 소셜 』

사회연결망(SNS - Social Network Service)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소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들입니다.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소셜, 즉 '사회적인 것'은 개인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인권 / 안전 / 건강·복지 / 노동 / 일자리 / 사회적약자지원 / 상생협력 / 공동체복원 / 지역경제 / 책임·윤리 / 환경 / 참여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어느 의원의 기본법안 발의안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일반적인 경향이 되어가기도 하고, 온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공포는 이를 더욱 강화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타인에 대한 혐오와 편 가르기(정치, 종교, 성별, 세대, 직업..)가 잦아지더니 어느새 일상화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도 됩니다.

'소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사회적00(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사회적 책임 등)'이라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닌 '함께 살아가기'를 추구하자고, 혐오와 편 가르기가 아닌 연대와 공감을 하자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소셜'에 관심 가지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혹은 더 많이 존재합니다. 예전의 민주화운동이나 정치참여처럼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뿐만이 아니죠.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들,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실천, 가치소비, 봉사활동, 청원공유 등은 모두 '소셜리더십'의 발현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서울동행 봉사활동 참여도, '소셜리더십'을 발현하는 하나의 형태(방법)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참여 동기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참여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교육이라는 장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활동이라는 장을 통해 동생과 '우리'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 다시, 소셜 리더십 』

결국 소셜리더십이란,

'To live together -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행동하여 사회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뿐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는 것, '선한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 모두 '소셜리더'인 것이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여기저기 퍼질 때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 *사실 처음 동행을 결심했을 때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만이 제 원동력이었지만, 서울동행과 함께한 이후 저는 두 가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교육 격차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
> *- 2020년 서울동행 활동후기 공모전, 강예은 스토리 중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적인 영향력을 꿈꾸지 않아도 '관계'의 측면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게 될 것이며, 단지 '타인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마음가짐' 하나 만으로도 우리의 동행 자원봉사현장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4. Connecting_

사회는 멋진 지도자들이
어려운 일을 해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평범한 일을 기차게 잘 해내서
변화되는 것이다.

- 존 가드너, ‘민주주의란’

『 Connecting_ 』

참고자료.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18) - 2018년 서울동행활동 스토리북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20) - 2020년 서울동행활동 후기 공모전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20) - 2020년 동행인문학 사회편

한동일(2018) - ‘라틴어수업’, 흐름출판

로베리트 포레스트 – ‘가지 않은 길’

tvN - ‘리틀 빅 히어로’ 10회

인사이트 -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는 옆집 댕댕이에게 용기내서 쪽지보낸 고양이’ 기사

베어베터/마르코로호/동구밭/밸리스/파타고니아/제리백 홈페이지

방송인 이시영/이동휘/이미도/헨리/손태영 인스타그램

선한영향력가게 홈페이지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부리또 팀 유튜브

발 행 인 : 김태균 이사장
편 집 인 : 김의욱 센터장
집 필 진 : 이소진, 이영동. 장한우리, 최진영
발 행 처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발간부서 : 사업총괄부 청년사업팀
발 행 일 : 2021년 4월
발간번호 : E-218
홈페이지 : www.donghaeng.seoul.kr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층(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전 화 : 02) 2136-8782~6
팩 스 : 02) 2136-8702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있으며, 무단복제를 금합니다.